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들의 말, SNS 알림, 공부에 대한 압박... 그래서 정말 중요한 소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데도, 그게 누구인지 몰라서 그냥 지나친 적은 없나요? 오늘 사무엘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그 소리가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반복된 후에야,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부, 친구 관계, 미래에 대한 고민 같은 여러 소리에 더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지나칠 것인가요? 아니면 사무엘처럼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인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